

제 1 교시

언어 이해

성명

수험 번호 0 1 -

작성형

- 이 문제지는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 하십시오.
- 문제지와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와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지 우측에 있는 ‘답안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1. 관용 표현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요즘 사업이 계속 개걸음만치고 있다.
- ② 대변인은 성명서의 요지를 알기 쉽게 변죽을 치며 설명했다.
- ③ 김 과장은 돌아서면서도 불만스러운 듯 고추 먹은 소리를 했다.
- ④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아이가 벌써 결혼을 앞둔 늙은 청년이 됐다.
- ⑤ 박 선생은 오지랖이 넓어 남들 걱정은 잘하는데, 정작 자기 앞가림을 못해요.

2. <보기>에 제시된 문장의 중의성(重義性)을 []의 뜻에 맞게 해소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김 사장은 밝은 표정으로 환영 나온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다. [김 사장의 표정이 밝음]

ㄴ. 철수는 이 선배와 지도 교수를 방문하여 진로 문제를 상담했다. [철수가 두 사람을 방문함]

ㄷ. 그는 조교를 통해 김 교수의 책을 전달받았다. [저자가 김 교수인 책]

ㄹ. 김동규와 박은재가 올해 결혼하였다. [둘이 부부가 되었음]

ㅁ. 나는 어제 철수만 만나지 않았다. [철수를 만났음]

- ① ㄱ의 중의성은 꾸밈을 받는 말의 불명확성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밝은 표정으로’를 ‘사람들과’의 뒤로 옮긴다.
- ② ㄴ의 중의성은 목적어의 불명확성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주어 뒤에 반점(.)을 첨가한다.
- ③ ㄷ의 중의성은 조사의 중의성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의’를 ‘가 지은’으로 바꾼다.
- ④ ㄹ의 중의성은 조사의 결합 구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와’와 ‘가’를 서로 교체한다.
- ⑤ ㅁ의 중의성은 부정어의 부정 내용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않았다’를 ‘못했다’로 바꾼다.

3. <보기>의 ()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끼리 묶인 것은?

<보 기>

- 주식 투자 손실을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하였다.
- 경찰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 대상자를 (㉡)하였다.
- 예술 학교는 무용 학교를 (㉢)하여 그 정원이 두 배가 되었다.
- 거리 이름과 방향을 알리는 (㉣)를 거리마다 설치해야 된다.
- 김 사장은 부사장에게 사업을 (㉤)하고 이제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 부동산 투기 일제 단속을 벌여 불법 매매 행위를 강력히 (㉥)할 방침이다.

- ① ㉠ 보존(保存), ㉡ 선발(選拔), ㉢ 합병(合併), ㉣ 표시(標示)
- ② ㉠ 보전(補填), ㉡ 선별(選別), ㉢ 표지(標識), ㉣ 인수(引受)
- ③ ㉠ 보전(補填), ㉢ 통합(統合), ㉣ 인수(引受), ㉤ 통제(統制)
- ④ ㉡ 선별(選別), ㉢ 합병(合併), ㉣ 인계(引繼), ㉤ 제재(制裁)
- ⑤ ㉡ 선발(選拔), ㉢ 표지(標識), ㉣ 인계(引繼), ㉤ 제재(制裁)

4. 예시문의 오류가 바르게 수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예시문	수정 내용	
사장님께서서는 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셨다.	격려하셨다 → 치하하셨다	... ㉠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도착 시간을 지켜야 한다.	한다 → 한다고 했다	... ㉡
이번 조치가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헛구호로 그칠지 지켜볼 일이다.	‘더 이상’을 삭제함	... ㉢
양측은 정국 정상화 방안에도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을 → 이	... ㉣
상해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요람이지만, 우리 민족혼의 산실이다.	-지만 → -더라도	... ㉤

- ① ㉠, ㉡ ② ㉡, ㉢ ③ ㉠, ㉢, ㉣
- ④ ㉡, ㉣, ㉤ ⑤ ㉢, ㉣, ㉤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계몽된 현대 사회에서 이성이 설정한 최고의 목적은 ‘자기 보존’이다. 그 결과 자연은 목적 없는 단순 물질이자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오랫동안 자연의 지배를 받아 왔던 인간이 이제 자연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성 자체가 도구화됨으로써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자기는 사라지고 오직 비판 능력 없는 추상적 자아만 보존된다. 호르크하이머는 이렇게 진행된 인간의 승리가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귀결된다고 진단한다. 이를 개념화하기 위해 그는 우선 내적 자연과 외적 자연을 구별하고 후자를 다시 인간적 자연과 비인간적 자연으로 나눈다.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가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진행된다는 호르크하이머의 명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인간에 의한 외적 자연 지배는 내적 자연에 대한 억압을 수반한다. 인간은 외적 자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내면화하면서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연을 기계처럼 다루듯이 자기 자신도 도구적 이성에게 작동되는 기계처럼 다루어야 한다. 도구적 이성으로 무장한 자아가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적 자연을 철저하게 억압함으로써 성공한 사람이 이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배한다.

추상적 자아에 의한 내적 자연의 지배가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 구조를 강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의 지배 구조가 자아에게 내적 자연을 지배하도록 강제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 보존과 성공을 위해 인간이 자신의 내적 자연까지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냉혹한 지배자로부터 혹사당한 경험에서 벗어나려는 비극적 몸부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외적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억압은 인간의 본래적 특성보다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호르크하이머에 따르면, 외적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 인간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억압의 주체인 이성과 자아에 대한 ‘원한 감정’을 더 키워 간다. 특히 이중적 억압의 희생자로 전락한 다수의 대중이 원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대중은 한편으로 자신의 자연적 충동을 스스로 억압해야만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다 성공적으로 내적 자연을 통제한 사람들에 의해 지배받는다. 이와 같이 억압받은 대중의 내적 자연이 억압의 주체인 도구적 이성에게 품은 원한 감정은 폭동의 잠재력이 된다. 일반적으로 원한 감정은 그것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파괴 욕구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원한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 하듯 타인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폭동을 일으킨다. 호르크하이머는 이를 ‘자연 폭동’이라고 부른다. 자연 폭동의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 파괴적 공격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할 수도 있고 처음 본 사람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파괴의 대상은 이처럼 언제나 대체 가능하지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호르크하이머는 여기서 현대의 파시즘이, 대중이 품고 있는 자연 폭동의 잠재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적 파시즘은 내·외적 자연을 억압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체제에 자연 폭동의 잠재력을 포섭함으로써 보다 철저하게 대중을 착취한다. 예를 들어 나치는 도구적 이성에게 희생된 대중들이 가진, 이성에 대한 원한 감정을 유대인을 향한 자연 폭동으로 이끌어 낸 것이다. 그러나 자연 폭동은 억압된 자연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을 영속시키는 데 기여했다. 도구적 이성의 전면화에 대항하는 자연적 인간들의 야만적 폭동은 표면적으로는 이성을 비하하고 자연을 순수한 생명력으로 추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성의 도구화를 촉진하였으며 내적 자연을 잔혹한 폭력의 주체로 발전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호르크하이머는 반이성적 자연 폭동은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본다. 이성을 거부하는 자연 폭동은 자연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족쇄를 채우는 데 이용될 뿐이기 때문이다. 족쇄에서 벗어나려면 반이성적 자연 폭동에 의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자연의 대립물인 이성이 먼저 비판적 사유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5. 위 글의 ‘자아’, ‘이성’, ‘자연’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 ① 외적 자연은 추상적 이성과 자아를 가지고 있다.
- ② 나에게 다른 사람은 외적 자연이면서 인간적 자연이다.
- ③ 나는 자아가 없는 내적 자연으로서 기계적으로 살아간다.
- ④ 과거에 자연이었던 것이 이제는 자연이 아니며 자아도 아니다.
- ⑤ 내적 자연이 자아를 지배한다면, 외적 자연은 이성을 억압한다.

6. 위 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는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의 또 다른 형태이다.
- ② 자연적 욕망을 강하게 억제함으로써 성공한 사람은 원한 감정을 갖지 않는다.
- ③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이 인간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미화될 수 있다.
- ④ ‘자연 폭동’은 전체주의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의 권력을 강화한다.
- ⑤ 내적 자연을 통제하는 데 실패한 현대인은 외적 자연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7. 위 글에 제시된 ‘호르크하이머’의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 타당한 것은?

- ① 자연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이 자연을 억압한다는 비판은 ‘계몽’이라는 논점에서 일탈하고 있다.
- ② 인간이 자연을 억압한다는 주장은 자연이 기계처럼 작용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명제를 가정한 허구이다.
- ③ 자연을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도구적 이성에 대한 비판은 자연 중심 사상을 가지고 이성을 격하하는 자기 기만이다.
- ④ 개인적인 심리적 병리 현상으로부터 사회적 억압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개별을 보편으로 성급하게 환원시키는 일반화의 오류이다.
- ⑤ 이성이 비판 능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하면서 이성의 비판적 활동에서 희망을 찾는 것은 이미 사라진 것을 있다고 가정하는 자기 모순이다.

[11~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존 포드(John Ford) 감독은 서부 영화를 스트레스 해소용 활극에서 인문학적 깊이를 지니는 장르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는데, 그의 작품 가운데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이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1962)이다.

영화는 상원 의원 랜스가 과거를 회고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동부에서 갓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랜스는 마차를 타고 서부 지역을 지나다가 무법자 리버티 밸런스 일당의 습격을 받아 큰 부상을 입는데, 톰과 그의 연인 할리 덕분에 목숨을 구하고 신본이라는 마을에 살게 된다. 그곳 사람들은 종종 마을에 나타나 행패를 부리는 리버티에게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마을 보안관 역시 리버티 앞에서 벌벌 떠는 소인배일 뿐이다. 피바디라는 지식인이 '신본 스타'라는 신문사를 통해 근대적 이념을 전파하려 하지만, 주민 대부분이 문맹인 그곳에서 무력감만 느낀다. 리버티가 겁내는 사람은 자기보다 힘세고 총을 더 잘 쏘는 톰뿐이다.

랜스는 이러한 상태를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야학을 열어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한편,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리버티의 법적 기소를 피한다. 그를 보면서 톰은 리버티를 이길 수 있는 건 총뿐이라며 비웃는다. 그러던 중 리버티 일당에 의한 피바디 살인 미수 사건이 벌어지자, 랜스도 법의 무력함을 절감하고 결투를 통해 리버티를 쏘아 죽인다. 그래서 랜스는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로 불리게 된다. 이윽고 서부에서도 연방 상원 의원 선거가 시작되자 랜스는 후보로 출마한다. 하지만 자신의 소신을 어기고 총을 사용했다는 죄책감에 후보직을 사퇴하려 하자, 톰이 나타나 자신이 숨어서 리버티를 저격했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비밀을 얘기하던 중 톰은 "당신은 너무 생각이 많고 말도 많아."라고 빈정대지만, 랜스가 유세장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왔음을 쓸쓸히 받아들인다. 결국 랜스는 선거에서 이긴다. 그리고 톰을 사랑했지만 랜스 또한 사랑했던 할리는 랜스와 결혼한다.

[A] 영화는 이처럼 주먹과 권총의 시대가 가고 이성과 법의 시대가 시작되려는 미국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문화철학자 비코를 떠올리게 한다. 비코는 법제도가 이성적·객관적 실체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근대적 단계를 '인간의 시대'로, 개인의 감정과 물리적 힘이 최종심급(最終審級)이었던 야만의 단계를 '영웅 시대'로 부른다.

물론 포드가 비코의 저작을 읽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지만, 영화의 두 '사나이'는 비코가 대비시키는 두 시대 유형에 그대로 대응한다. 즉 톰과 랜스는 각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대와 새롭게 도래하는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톰이 허리에 차고 있는 권총과 랜스가 들고 온 법전은 그것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대립적인 이미지는 랜스가 물을 끌어 들여 기르는 장미와 톰이 애착을 보이는 거친 사막의 선인장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갈등 관계에 있는 두 대립적 가치를 하나의 예술적 장치로 엮어 형상화함으로써 자신의 ㉠ 양가적(兩價的) 지향성을 우회적으로 노출시키는 포드 감독의 전략이다. 이는 등장인물에 포드 자신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제목 자체가 두 인물을 동시에 가리킨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 영화는 호쾌한 장면 연출을 극도로 억제함으로써 다른 대부분의 서부극과 달리 관객에게 높은 수준의 감상 능력을 요구한다. 즉 이 영화의 예술적 이미지는 더 이상 감각적으로만 소비되는 대상이 아니라 일종의 변용된 이미지로서, 피상적 접근만으로는 관독될 수 없는 심층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예술 작품은 그것의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수용 과정에서도 지적 도야를 불가결의 조건으로 요구하거나, 한갓된 감각적 쾌 또는 불쾌에서 소진되지 않는다. 더욱이 수작으로 평가되는 작품들에는 심층 의식, 사상, 가치관, 세계관 등은 물론 예술 자체의 정체성에 대한 작가의 생각까지도 예술적 장치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작품과 작간접적으로 연관된 선이해(先理解)가 갖춰지지 않으면 결국 그 작품들은 수수께끼로 남는다. 요컨대, 훌륭한 예술적 이미지는 육안으로 '보는' 대상에 그치지 않는, 심안으로 '읽어야' 할 일종의 텍스트인 것이다.

11. [A]의 '비코'의 분류에 따라 등장인물을 평가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리버티'는 철저히 '영웅 시대'의 법칙에 따라 사는 인물이다.
- ② '피바디'는 '인간의 시대'를 지향하지만 '영웅 시대'의 위력 앞에 한계를 느끼는 인물이다.
- ③ '보안관'은 '인간의 시대'를 형식적으로 대변하지만 오히려 '영웅 시대'에 순응하는 인물이다.
- ④ '랜스'는 '인간의 시대'의 법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영웅 시대'의 종말을 가져온 인물이다.
- ⑤ '톰'은 '영웅 시대'의 법칙에 따름으로써 역설적으로 '인간의 시대'의 도래를 앞당긴 인물이다.

1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숨어서 악당을 쏘도록 설정함으로써 서부 영화의 주제인 정의의 구현 이면에 숨겨진 비겁함을 동시에 보여 준다.
- ② 두 남자와 한 여자의 삼각관계를 통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서부극의 일방적인 이분법적 시각을 여전히 드러낸다.
- ③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사람에 대한 동시적인 미련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시대의 삶의 방식에 대한 동시적 애정을 반영한다.
- ④ 근대 국가로서의 미국의 가치를 드러내려 하지만, 남녀 사이의 복잡한 애정 관계를 다룬 멜로물의 요소 또한 뿌리치지 못한다.
- ⑤ 한 나약한 인간이 강자로 성장해 가는 해피 엔딩의 전형적 구조에 따르면서도, 현실의 충실한 반영을 넘어선 서부극 특유의 공상적 주제를 구현한다.

13. [B]의 관점에 따라 예술 작품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빈치의 그림 <성안나와 성모자>는 그의 출생 내력과 유년기 경험이 묘한 동성애적 코드로 변형된 무의식 세계를 함축하고 있어서 프로이트 정신 분석학의 주요한 소재로 등장한다.
- ②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는 이집트 신화 모티프를 차용하고 여러 익살적인 장면과 고난도의 아리아를 활용하여 예술의 심미적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프리메이슨의 선진적 정치 이념을 함축하고 있다.
- ③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합리적 이성의 일방적 독주를 경계하면서 감성적 차원을 옹호하려는 그의 낭만주의적 인간학을, 이를 수 없는 사랑에 대한 한 남자의 좌절이라는 통속적 줄거리 속에 담고 있다.
- ④ 존 케이지의 <4분 33초>는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즉흥적인 소음뿐 아니라 정적(靜寂)까지도 음악적 소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음악의 본질 문제에 대한 미학적 질문을 던진 도발적 실험이다.
- 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요셉과 멋진 색동옷>은 구약 성서에서 그 소재를 빌려 오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록, 컨트리, 탱고, 칼립소 등 다양한 음악 양식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 관객에게 편안한 즐거움을 제공하는가 하는 것이다.

축하여 가속화하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시장에 제품을 내놓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 전략은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거나 첨단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택된다. 명확하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직관력을 키우고 유연한 선택 대안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불확실한 환경을 재빨리 학습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접근 방식은 확실성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고, 선형적이기보다는 반복적이고, 계획적이기보다는 경험적이다. 반복을 통해 신제품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보아 시제품 제작을 통해 제품 설계를 가속화시킬 것을 주장한다.

이 전략은 즉각적으로 결정하기, 실시간 교류와 경험, 유연성 등을 중요시한다. 또한 빈번한 이정표 관리, 강력한 리더 배치 등을 활용함으로써 제품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정표 관리는 공식적인 평가이기는 하나 사전에 계획되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수시로 현재 진행 상황을 재평가하여 코스를 이탈하는 행동을 막고, 변화하는 시장이나 기술에 대한 대응을 점검해서 반복과 시험으로 인해 무질서해질 수 있는 개발 활동들을 조정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수없이 많은 반복과 시험 활동 때문에 팀 구성원들이 ‘큰 그림’을 잃는다면 개발 과정은 통제 밖으로 벗어날 우려가 크다. 강력한 리더는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여 개발 과정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신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다. 하나는 압축 전략으로, 이는 개발 과정의 합리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예측이 가능한 단계들로 구성된 제품 개발 과정을 단축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각 단계들의 합이 전체 과정이므로 이 전략은 각 단계에서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련의 단계들을 명확히 확립하고 분석한 후에 ‘쥐어짜기’를 통해 제품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략은 ‘계획하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단계를 제거할 수 있으며 활동을 효율적인 순서로 배열하여 의사소통과 업무 조정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협력 업체의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단계를 간소화하고 개발 팀은 핵심적인 업무에 더욱 전념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과거의 설계들을 재활용하여 개발 시간과 잠재적 오류를 줄이며, 연속된 개발 단계들을 부분적으로 겹치게 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은 다부서 팀과 관련이 깊다. 다부서 팀을 가동함으로써 여러 부서의 협력이 공고해질 경우 개발 과정이 빨라질 것이다. 포상 제도는 계획 기간 안에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각오와 집중력을 이끌어 내어 성과를 볼 수 있지만, 신제품 개발 선정 시 손쉬운 개발 대상을 선호하게 만들 수도 있다.

압축 전략과는 대조적으로 경험 전략은 단지 기존의 과정을 압

14. ‘경험 전략’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즉각적이고 유연한 판단으로 대안을 결정한다.
- ② 실시간적 교류 활동으로 제품 개발을 가속화한다.
- ③ 반복 설계와 시험을 통해 학습된 경험을 활용한다.
- ④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식적 점검을 수시로 실행한다.
- ⑤ 개발 활동 내용을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효율성을 제고한다.

15. 위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제품 개발 전략의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발에 허용된 시간
- ② 계획 수립의 용이성
- ③ 진출하려는 시장의 상황
- ④ 기업이 보유한 인적 역량
- ⑤ 제품에 적용될 기술의 특성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어제 돌아갈 때 어쩌면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지 모르지만 만일 오늘 또 오게 되면 당신에게 누가 리자베타를 죽였는지 알려 주겠다고 했지.”

그녀는 갑자기 온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래서 자 이제 알려 주려고 온 거야.”

“그럼 당신은 어제 그 말을 진심으로…….” 소냐는 간신히 소곤거렸다.

“대체 당신이 어떻게 아세요?” 문득 정신을 차린 듯이 그녀는 빠른 말투로 물었다. 그녀는 숨쉬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다.

“알고 있어.” 라스콜리니코프가 대답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사람들이 찾아냈다는 얘긴가요, 그 남자를?” 그녀가 머뭇거리며 물어보았다.

“아니, 찾아내지는 못했어.”

“그럼 대체 당신은 어떻게 ㉠ 그것에 대해서 아신다는 거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또 다시 그녀가 들릴 듯 말 듯 물어보았다.

그는 그녀 쪽으로 몸을 돌려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어디 맞혀 봐.” 일그러지고 힘없는 미소를 띠며 그가 말했다.

그녀의 몸 전체에 경련과 같은 것이 지나갔다.

“아, 당신은 날…… 대체 왜 날 그렇게…… 놀라게 하세요?” 어린애처럼 미소 지으며 그녀가 말했다.

“내가 사건의 윤곽을 알고 있는 이상 내가 그 남자와 아주 친한 사이란 건 당신도 짐작할거야…….” 그는 이미 그녀에게서 눈을 뗄 힘도 없는 듯 그녀를 뚫어지게 계속 응시하면서 말을 이어갔다. “그는 리자베타를 죽이려 한 건 아니야……. 그냥…… 우연히 죽이게 된 것뿐이지. 그는 언니인 노파가 혼자 있을 때 그 노파를 죽이려 들어간 건데…… 그때 리자베타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녀마저 죽이게 된 거지.”

또다시 끔찍한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둘은 계속 서로를 응시했다.

“이래도 맞히지 못하겠어?” 마치 종루에서 아래로 몸을 던지는 기분으로 그가 갑자기 물었다.

“모르겠어요.” 들릴 듯 말 듯 소냐가 속삭였다.

“잘 좀 생각해 봐.”

이 말을 하자마자 익숙했던 예전의 한 느낌이 또 다시 그의 영혼을 얼어붙게 했다. 그가 소냐를 쳐다본 순간 갑자기 그녀의 얼굴에 리자베타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했기 때문이다. 도끼를 들고 다가갔을 때, 그때의 리자베타의 얼굴 표정을 그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어린애가 갑자기 무엇인가 흠칫 놀랐을 때 자기를 놀라게 한 것을 불안스럽게 주시하다가 조그만 손으로 앞으로 내밀고 뒤로 몸을 빼내면서 짓는 금방 울 것 같은 표정……. 흡사 그런 완전히 어린애 같은 놀라움의 표정을 얼굴에 드러내면서 리자베타는 한 손을 앞으로 치켜들고 그를 피하려고 벽 쪽으로 뒷걸음질 쳤던 것이다.

그것과 거의 똑같은 일이 지금 소냐에게도 일어났다. 그녀는 무기력하고 놀란 표정으로 잠시 동안 그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왼손을 앞으로 내밀어 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살짝 밀면서 침대에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조금씩 그로부터 뒷걸음질을 치면서도 그녀의 눈길은 더욱 더 그의 얼굴에 고정되어 갔다. 그녀의

공포감이 그에게도 갑자기 전해져 왔다. 소냐가 지었던 놀라움의 표정이 그의 얼굴에도 비친 후에 그도 역시 거의 어린애 같은 미소를 띠고 그녀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알겠지?” 그가 마침내 나지막하게 물어보았다.

“아아!” 그녀의 가슴 속으로부터 끔찍한 호느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맥없이 침대로 쓰러지며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러나 이내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그의 곁으로 바짝 다가서서 두 손으로 그를 잡고 그 가느다란 손가락들에 힘을 주며 또 다시 못에라도 박힌 듯 꼼짝도 않고 그의 얼굴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이 최후의 절망적인 눈초리로 그녀는 무언가 한 가닥 희망이나마 발견하여 그것을 잡아 보려 했다. 그러나 희망은 없었다.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모든 게 그의 말 ㉡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훨씬 뒤에 이때의 일을 회상했을 때에도 그녀는 언제나 불가사의한 느낌이 들곤 했다. 아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그 때 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대뜸 파악하게 되었을까? 사실 그런 종류의 무언가를 그녀가 예감하고 있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그가 그녀에게 ㉢ 그 사실을 말하자마자 그녀는 자신이 마치 정말로 바로 그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됐어, 소냐, 이제 됐다고! 날 괴롭히지 말아 줘!” 그가 고통스럽게 부탁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털어놓으리라고는 정말로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결국은 ㉣ 그렇게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정신없이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비비면서 방 한가운데까지 갔으나 재빨리 몸을 돌려 다시 그의 곁으로 돌아와 거의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붙어 앉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무엇에 찢린 듯이 몸을 부르르 떨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더니 자신도 모르게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 어찌자고, 어찌자고 당신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녀는 절망적으로 외치더니 훌쩍 일어나 그의 목에 매달려 두 손으로 꼭 껴안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문득 뒤로 물러나더니 서글픈 웃음을 띠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상한 여자야, 소냐. 내가 ㉤ 그것에 대해 얘기했는데도 끌어안고 키스를 해주다니. 당신 아마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보군.”

“아니에요, 이 순간 세상에서 당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그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녀는 흥분의 절정에 달한 듯이 외쳤다. 그리고는 발작이라도 일으켰는지 흑흑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이 그의 가슴에 파도처럼 밀려와 순식간에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었다. 그는 그 감정에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 두 방울이 흘러나와 속눈썹에 맺혔다.

“그럼, 당신은 날 버리지 않을 거지, 소냐?”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그는 물었다.

“그럼요, 그럼요, 절대요, 절대로요!” 소냐가 외쳤다. “난 당신을 따라 가겠어요, 어디든 따라 가겠어요! 아아…… 전 참 불행한 여자예요! 왜, 왜 내가 당신을 더 빨리 알게 되지 못했을까요? 왜 당신은 내게 좀 더 빨리 오지 않았나요? 아아!”

“그래서 이렇게 온 거잖아.”

“그래요, 이제야 왔군요! 아, 이제 어떻게 하지……. 그래요 함께, 우리 함께!” 그녀는 제정신이 아닌 듯 다시 그를 끌어안으며 되풀이했다. “감옥을 가더라도 함께 따라 가겠어요!”

-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 -

16. ㉠~㉣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 ④ ㉣

17. 인물의 심리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라스콜리니코프’는 그의 범행 사실을 ‘소냐’가 알도록 유도해 가면서도 그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자괴감과 절망감을 느낀다.
- ②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암시에 따라 그가 범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공포를 느낀다.
- ③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가 범행 사실을 안 다음에도 그것을 믿지 않으려 애쓰는 표정을 짓자 괴로움을 느낀다.
- ④ ‘소냐’는 범행 사실을 확인한 상태에서 절망감과 함께 ‘라스콜리니코프’에 대한 강렬한 동정심을 느낀다.
- ⑤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가 그를 불행하다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리자 자신의 범행 동기가 이해되었다고 생각하고 감동을 느낀다.

18. <보기>의 ㉠~㉣ 중,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 기>

도스토예프스키는 「죄와 벌」을 구상하면서 당대 러시아의 대표적 사상과 철학들의 부정적 요소들을 나타내 보고자 했다. 작가는, ㉠ 사회에 무익한 자를 제거하고 그의 재물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에 사용하는 행위를 휴머니즘의 차원에서 판단하려는 태도와 ㉡ 비범한 인간들이 대의(大義)를 위해 한 행동은 평범한 인간들의 가치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 사람을 죽이는 행위의 동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태도는 그 자체가 모순이며, 따라서 살인 행위는 필연적으로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정교한 심리 묘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정신적 고통은 ㉣ 자신의 행위를 사랑과 양심의 차원에서 대하는 태도를 가질 때 해결 가능한 길로 들어설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작가는 그 ㉤ 궁극적인 해결은 신의 섭리에 의존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 ④ ㉣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존(O₃)은 산소 원자(O)와 산소 분자(O₂)가 결합하여 생성된 것으로, 희석하여 소독제로 사용할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며 지상 대기 중에서는 식물의 엽록체와 인간의 폐 조직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오존은 생명체에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상층 대기에서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구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지상에서 오존은 질소 산화물이 강한 태양 광선을 받아 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된다. 질소 산화물은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며, 대부분 산화질소(NO)와 이산화질소(NO₂)의 형태로 배출된다. 산화질소는 오존과 마찬가지로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산소 원자와 결합하여 보다 안정된 이산화질소로 전환된다. 이산화질소는 태양 광선을 받으면 다시 산화질소와 산소 원자로 분해된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산소 원자가 산소 분자와 결합하여 오존을 만든다. 오존이 생성되는 과정에 탄화수소가 촉매로 작용한다.

상층 대기의 오존은 주로 저위도의 성층권 하층에서 생성된다. 산소 분자가 자외선을 받아 산소 원자로 분해되고, 분해된 산소 원자가 다른 산소 분자와 결합하여 오존이 생성된다. 이 과정에 질소 분자나 산소 분자가 촉매로 작용한다. 성층권은 최하부 대기층인 대류권의 상공으로부터 50km에 이르는 대기층인데, 공기의 연직 순환이 활발한 대류권과 달리 상층일수록 기온이 높아져 대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성층권의 기온은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양에 비례한다. 오존은 성층권의 최하층에 대부분 존재하는데, 이 층을 오존층이라고 한다. 오존층 파괴는 항공기 운행과 핵 실험 과정에서 배출되는 산화질소의 영향도 있지만, 이산화탄소와 함께 주요 온실 기체로 분류되고 있는 프레온 가스(CF₂Cl₂ 또는 CFCl₃)에 주로 기인한다. 1920년대 말에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프레온 가스는 매우 안정하여 대류권 내에서는 햇빛에 노출되어도 분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긴 시간에 걸쳐서 대기 대순환 과정을 통해 지구 대기 전역으로 확산되어 갈 수 있다. 프레온 가스는 성층권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분해되어 염소 원자(Cl)가 방출된다. 염소 원자는 오존과 화학 반응하여 산화염소(CIO)를 생성하고, 산화염소는 다시 산소 원자와 화학 반응하여 염소 원자로 돌아간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오존이 파괴된다.

햇빛이 매우 약한 겨울철 남극 상공의 하부 성층권에는 바람이 강하게 회전하는 거대한 원형의 소용돌이가 형성된다. 그리고 대기 대순환에 의해 프레온 가스와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저위도로부터 소용돌이 내로 유입된다. 소용돌이로 유입된 공기 속에 존재하던 수증기는 얼음 결정으로 변하는데, 이때 프레온 가스가 얼음 결정 속에 포집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겨울 동안 소용돌이 내에는 프레온 가스를 포집한 얼음 결정이 계속 적체된다. 봄이 되어 이 지역에 햇빛이 들면 소용돌이는 세력이 약화되어 와해되는데, 이때 얼음 결정이 녹으면서 포집되어 있던 프레온 가스로부터 염소 원자가 공기 중으로 빠르게 방출되어 오존을 집중적으로 파괴한다. 남극의 오존층 파괴는 프레온 가스가 개발된 지 반세기가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프레온 가스가 남극 상공까지 수송되어 축적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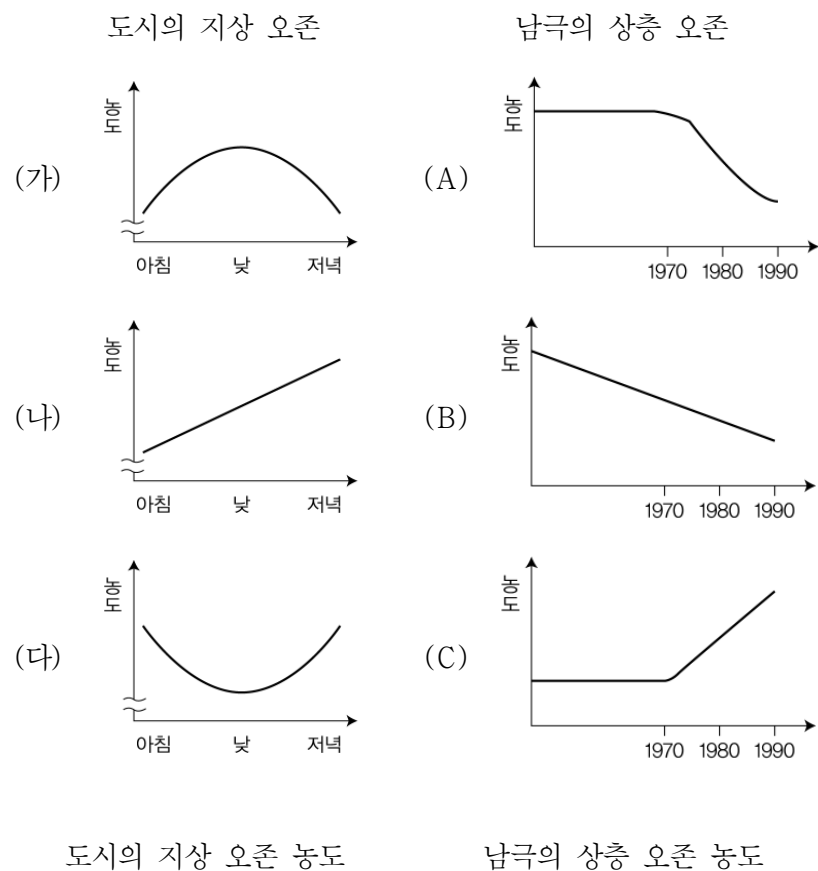
한편, 북극의 소용돌이는 남극만큼 강하지 않아 그 모양이 구불구불하여 소용돌이 내의 공기와 주변 공기 간에 혼합이 많이

일어나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는다. 이로 인해 오존층 파괴가 남극보다 덜하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성층권의 기온은 오히려 하강하게 되어 남극의 소용돌이뿐만 아니라 북극의 소용돌이도 더욱 강해지고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한다. 대기 중에 온실 기체 농도가 증가하면 대류권에서는 온실 기체가 기온 상승을 가져오지만, 성층권에서는 성층권 특유의 열적 구조로 인하여 오히려 기온을 하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 지구 온난화에 수반되어 극지방 소용돌이의 강도 변화가 실제로 나타난다면 오존층 파괴의 양상이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다.

1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질소와 산소가 지상 오존 발생에 촉매로 작용한다.
- ② 프레온 가스는 오존층 파괴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유발한다.
- ③ 오존층 파괴는 프레온 가스 배출이 많은 지역의 상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 ④ 성층권에서 오존을 만드는 산소 원자는 주로 산화염소가 분해되어 생성된다.
- ⑤ 성층권에서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고도와 기온이 가장 높은 고도는 일치한다.

20. 도시의 지상 오존 농도와 남극의 상층 오존 농도의 변화를 바르게 나타낸 것끼리 묶인 것은?



- | | | |
|---|-----|-----|
| ① | (가) | (A) |
| ② | (가) | (B) |
| ③ | (나) | (B) |
| ④ | (다) | (A) |
| ⑤ | (다) | (C) |

21. ㉠과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북극 소용돌이의 형태는 더욱 구불구불해진다.
- ② 북반구의 자외선 강도가 남반구에 비해 더 커진다.
- ③ 소용돌이 내에 농축되는 프레온 가스 양은 감소하게 된다.
- ④ 성층권의 오존 농도가 감소되며 소용돌이 강도는 더 커진다.
- ⑤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가 시작되는 시기는 봄 이후로 늦어진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시대의 공중(公衆)에게 주요한 ‘쟁점’은 무엇이며 사적 개인들에게 핵심적인 ‘고민’은 무엇인가? 쟁점과 고민을 정식화(formulation)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 가운데 이 시대의 특징적 경향에 의해 위협받거나 지지받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위협받는 경우든 지지받는 경우든 우리는 어떤 독특한 구조적 모순이 그에 관련되어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사람들이 일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이 위협받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들은 ‘안녕’을 경험한다. 일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그들은 개인적 고민이나 공적인 쟁점으로 ‘위기’를 경험한다. 만일 그들의 모든 가치가 위협받는 것처럼 보이면 그들은 공황이라는 총체적 위협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전혀 인식조차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그것은 곧 ‘무관심’의 경험이다. 만약 그 경험이 사람들의 모든 가치와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냉담함이 되어 버린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소중하다고 의식하지 않지만 위협은 크게 의식하고 있는 경우를 가상해 보자. 그것은 ‘불안’과 초조의 경험이며 만일 그것이 완전히 총체적인 것이라면 알 수 없는 극도의 불안이 된다.

이 시대는 아직도 이성의 작동과 감수성의 활동이 정식화되어 있지 않은 불안과 무관심의 시대이다. 개인의 삶에서는 가치와 위협에 따라 정의되는 고민 대신 모호한 불안이라는 불행의 겪을 때가 많으며, 공중의 삶에서는 명백한 쟁점 대신 어딘가 잘못된 것 같다는 혼란스러운 느낌이 많다. 위협받는 가치가 무엇이며 그것을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진술되지 않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미결정의 상태로 남아 있다. 따라서 그것은 사회 과학의 문제로 정식화되지 못하고 있다.

1930년대에는 당시의 경제 문제가 일련의 개인적 고민인 동시에 하나의 경제적 쟁점으로 존재했다는 점에 의문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자본주의의 위기’에 관한 이러한 논의에서 마르크스의 견해와 그의 작업에 대한 다양하고 승인되지 않은 재정식화는 문제에 대한 주도적인 접근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며, 일부 사람들은 자기들의 개인적 고민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었다. 위협받고 있는 가치를 분명히 알 수 있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존중하였고, 그것을 위협하는 구조적 모순도 분명해 보였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광범위하고도 심각하게 경험했다.

그 당시야말로 정치적인 시대였다.

그러나 제2차 대전 이후에는 위협받고 있는 가치가 가치로 널리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위협받고 있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있다. 대부분의 사적인 불안이 정식화되지 않은 채 지나가고 있으며, 수많은 공적인 불안과 엄청난 구조적인 중요성을 갖는 많은 결정들이 공적 쟁점이 되지 않고 있다. 이성과 자유 등과 같은 고유의 가치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안 그 자체가 고민이며 무관심 자체가 쟁점이다. 그리고 바로 불안과 무관심이라는 이러한 조건이야말로 1950년대의 현저한 특징이다.

[A]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현저한 특징이기 때문에, 관찰자들은 이것을 정식화해야 할 문제 자체가 변화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1950년대의 문제나 심지어 위기조차도 경제라는 외적인 영역으로부터 이제 개인적 삶의 질에 관련된 것으로 이전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는다. 사실상 개인적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아동노동이 아니라 만화책이, 빈곤이 아니라 대중여가가 중심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사적 고민들뿐 아니라 수많은 중대한 공적 쟁점이 '정신 병리학'에 입각하여 서술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현대 사회의 중대한 쟁점들과 고민들을 회피하려는 애처로운 시도로 보인다. 이러한 진술은 흔히 서방 사회에, 그중에서도 미국 사회에만 국한된, 따라서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무시하는 국지적이고 편협한 관심사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흔히 그것은 개인의 삶을, 그 속에서 삶이 영위되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제도로부터 자의적으로 분리시킨다.

따라서 사회과학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정치적·지적 과제는 이 시대의 불안과 무관심의 요소를 명백히 밝혀내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문화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회과학자에게 부과하는 핵심적인 요구이다. 사회 과학이 현대라는 문화사적 시대의 공통분모가 되며 사회학적 상상력이 우리들 모두의 가장 긴요한 정신적 자질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과제와 요구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 밀스, 「사회학적 상상력」 -

22.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핵심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념을 사용하여 사회 현실을 분석하고 있다.
- ② 사회를 보는 관점을 분류하고 각 관점들의 특징과 한계를 검토하고 있다.
- ③ 시대의 대표적 사건들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시대의 경향을 탐구하고 있다.
- ④ 현대 사회 문제를 서술하는 대립되는 견해들을 비교하여 조화를 피하고 있다.
- ⑤ 사회 과학의 구체적인 탐구 방법을 비교하고 효과적인 탐구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23. 글쓴이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시대의 특징인 불안과 무관심이 공적 쟁점이 되지 않는 것 자체가 고민이며 쟁점이다.
- ② 1930년대에는 경제 문제가 쟁점이었으나 1950년대에는 개인적 삶의 질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 ③ 1930년대의 '자본주의의 위기'에 관한 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관점이 주도적인 접근 방법이었다.
- ④ 쟁점과 고민을 정신 병리학에 입각하여 서술하는 것은 개인의 삶과 제도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 ⑤ 사회 과학은 위협받는 가치가 무엇이며 그것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밝혀야 한다.

24. '가치'와 '위협'에 대한 위 글의 설명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존중하는 가치가 위협받을 때 사람들은 냉담함을 경험하게 된다.
- ② 무관심은 존중하는 가치를 의식하지 않거나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 생겨난다.
- ③ 소중한 가치가 위협받는 위기는 개인의 차원이나 공중의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다.
- ④ 존중하는 가치를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총체적인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 사람들은 공황을 경험하게 된다.
- ⑤ 존중하는 가치에 대한 의식 여부와는 상관없이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 사람들은 안녕을 경험하게 된다.

25. [A]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 ① 제도적 차원의 중대한 쟁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적 고민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 ② 공적 쟁점은 서방 사회 전반의 문제이지만 사적 고민은 미국 사회에 국한된 문제이다.
- ③ 사적 고민을 이해하려면 사회 제도와, 그 사회의 불안과 무관심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④ 개인적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공적 쟁점보다 사적 고민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⑤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이전시켜 이해하려는 관점을 극복해야 한다.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국가 권력에서 정통성이 없는 권위주의 정치 세력을 배제하고 선거 경쟁을 통해 정부를 구성하여 민주적 절차를 마련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을 중시하는 주창자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경쟁에서 다수의 표를 얻은 정당 및 정치인들이 국가 권력을 획득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민주주의를 정치적 경쟁 및 참여가 보장되는 기본적인 절차로 해석하는 것도 이러한 설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절차적 제도로는 투표권, 공무 담임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실질적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기적이고 공정한 선거 경쟁을 통해 대표와 정부가 구성되고 국민을 대변하는 절차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적 균열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및 자원 배분상의 불합리로 권력 남용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하여 갈등과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그러므로 국민의 참여와 선택에서 연유하는 정치적 대표성이 보다 확고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대표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 기구가 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실현된 성과와 실적이 국민의 요구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응답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선출된 대표가 국민의 완벽한 대리인으로 행위하도록 통제해야 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 대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퇴출되는 책임성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다양한 국민의 참여를 통하여 사회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제도화함으로써 자기 지속적인 체제로 확립되어 가는 과정,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일컬어진다. 현대 사회는 시민 사회, 정치 사회, 국가 그리고 경제 사회 등 부분 체제들의 복합체이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각 부분 체제의 제도화 과정이고, 각 부분 체제들은 상호 의존적이다. 우선, 이익 표출 및 집약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 사회의 결사체들이 보다 포괄적으로 조직되어 협력하는 네트워크 및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이익 갈등을 조정했을 때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가능해진다. 사회 구성원 개인과 집단의 이해가 개별적으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결사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시민 사회 내의 요구 사항이 취합되어 갈등 조정이 용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 정당, 의회 등으로 구성되는 정치 사회가 사회적·경제적 균열로 인한 갈등을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범, 규칙 및 절차를 갖고 있을 때 민주주의는 공고화될 수 있다. 정치 사회의 공식 및 비공식 행위자들이 경제사회적 균열구조에 조응하여 편제되고, 이들의 이익을 정치 영역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할 때 민주주의는 보다 성숙되는 것이다.

아울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결정 및 집행을 통해 갈등 조정을 시도하는 국가 능력, 그리고 경제적 지배 세력의 압력이나 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의 자율성 역시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중요한 관건이다. 국가가 특정 세력의 정치적·경제적 이해를 관철하는 도구적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합리적인 국가

운영을 통해 구성원의 이해를 통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갈등 확산을 방지하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 결정적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시장을 매개하는 경제 사회가 자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 경제의 비윤리성을 치유하는 복지 제도를 통해 시장 실패자들이 겪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경제 사회 내의 합의를 중심으로 제도화할 때 민주주의는 공고화된다.

26. 위 글의 ‘대표성’, ‘응답성’, ‘책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 ② 선거를 통한 정치 권력의 탄생은 정치적 응답성을 보장한다.
- ③ 정치적 대표성은 정치적 응답성보다 책임성 보장에 기여한다.
- ④ 정치적 응답성은 정치 기구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의미한다.
- ⑤ 정치적 책임성은 대의제에서 정치 대표자에 대한 국민의 통제 행위와 관련된다.

27.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도입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민 사회의 신뢰 구축과 조정 기제를 강화한다.
- ② 경제사회적 균열 구조를 반영하는 정치 세력화를 억제한다.
- ③ 시민 사회의 활성화로 분산된 이익의 집약 통로를 확보한다.
- ④ 경제와 사회 지도층의 이익 독점을 통제하는 제도를 확립한다.
- ⑤ 시장 경제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사회적 합의 장치를 확충한다.

28. ㉠에 대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복수 노조 허용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갈등은 줄어들지 않았다.
- ② 피선거권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당선자 대부분은 재력가였다.
- ③ 보통·평등 선거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역 투표 성향은 강화되었다.
- ④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 ⑤ 법정 선거 연령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변화하지 않았다.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베버는 독일의 통일 민법전(民法典)이 제정되자, 이를 서구 근대법의 최상의 형태로 보고자 하였다. 그의 관심은 서구 근대법과 자본주의의 친화 관계를 밝히는 데 있었다.

베버는 자본가의 관심이 서구 근대법의 추진력으로 작용하였다고 하였다. 근대 자본주의 기업은 계산 가능성을 전제로 하며, 마치 기계의 작동처럼 확정적이고 일반적인 규범에 의하여 그 작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법 체계와 행정 체계를 요구한다. 또한 정치적 측면에서는 절대주의 국가의 확대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군주의 행정 기술적인 관심과 관료 행정의 공리적 합리주의가 서구 근대법의 등장을 촉진하였다. 베버는 특히 관료제에 주목하면서, 관료제는 그 내적인 필요성에서 행정의 합리적 수단을 창출하게 되고, 그 결과로 새로운 법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정치적·경제적 요인 이외에 서구 근대법의 등장에 중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베버가 본 것은 직업적 법률가 계층의 성장이다. 법률가 계층의 양성은 유럽 대륙에서는 대학에서 행해진 이론적 법학 교육에 의하여, 영국에서는 실무자들에 의한 경험적 법 훈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서구 근대법의 발달을 촉진한 것은 로마법의 전통에 입각하여 유럽 대륙에서 수행된 근대적 법학 교육이었다. 근대적 법학 교육에서 사용되는 법 개념들은 성문화되어 있는 일반 규칙에 대한 엄격히 형식적인 의미 해석을 통해 형성되었고, 법 이론은 종교적·윤리적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 사항에서 점차 벗어나 독자적인 논리 체계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법 이론의 지배를 받는 법률가 계층이 성장함에 따라, 법적 추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었다.

베버는 서구 근대법이 자본주의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았다. 첫째, 계약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권리의무 관계가 근대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권리의 실현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법적 안정성 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둘째, 경제 활동의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법적 수단이 제공됨으로써 자본주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인(法人)과 같은 법 개념의 도입으로 개인의 책임의 한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개인의 경제 활동 영역을 크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자본주의와 서구 근대법의 관계에 관한 베버의 설명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이른바 ‘영국 문제’이다.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은 ㉠ 베버가 말하는 서구 근대법의 특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통법은 구체적 판례에 기초한 경험적 정의를 추구하는 불문법 체계로, 전혀 논리적이기도 추상적이기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자본주의는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고 가장 발달했다. 이 점에 대하여 베버는 영국의 법률가 계층이 그들의 고객인 자본가들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판사는 엄격히 선례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판결 결과는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요컨대 영국의 보통법이 체계적인 과학성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베버 당시의 독일이 경제적으로 영국에 뒤떨어진 사회였음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영국 문제에 대한 베버의 논의가 암시하는 것은 자본주의 발전에 필요한 정도의 법적 예측 가능성은 법의 체계화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29. ‘서구 근대법과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한 베버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영국의 자본주의 발전은 불문법 체계의 유연성에서 비롯되었다.
- ② 자본주의 기업은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정의에 입각한 법 체계를 요구하였다.
- ③ 행정 관료는 자본가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서 서구 근대법을 필요로 하였다.
- ④ 기업 책임에 관한 법은 기업가의 행위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여 자본주의 확산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⑤ 서구 근대법은 경제적 계약 관계와 법적 권리의무 관계를 분리시킴으로써 자본주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30.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전의 형태를 갖는다.
- ②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다.
- ③ 추상적인 법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 ④ 윤리 규범을 이용한 추론 체계를 갖는다.
- ⑤ 법적 추론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게 한다.

31. 이론이 전개되어 간 경로가 ‘영국 문제’에 대한 베버의 설명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멘델레예프는 원소를 일정한 규칙성을 갖도록 배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쟁하던 두 방법의 장점을 절충하려 했다. 결국 그는 원소를 기본적으로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되 성질이 같은 순으로 묶는 방법을 제안했다.
- ② 다윈은 자신의 진화론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의 특징이 자식 세대로 안정되게 전달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설명은 멘델에 의해서 비로소 제시되었다.
- ③ 박테리오파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델브릭은 형질이 원칙적으로 유전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진핵 세포에 대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형질이 유전자 외에도 다른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 ④ 베게너는 대륙들의 해안선이 들어맞는다는 사실과 각 대륙의 화석 기록의 특징 등에 기초하여 대륙 이동설을 제안했다. 그의 이론은 동료 학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다가 대륙의 이동을 설명할 수 있는 판 구조론이 제시되면서 비로소 널리 수용되었다.
- ⑤ 하이젠베르크는 원자 수준의 미시 현상에서는 측정 과정에 개입하는 불가피한 물리적 영향 때문에 측정값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불확정성 원리를 제안했다. 현재 불확정성 원리는 하이젠베르크가 제안한 것과는 다르게 해석되지만, 여전히 그것의 수학적 형식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글썩을시다.”

도장방 주인은 인면(印面)을 들여다 보며 오준의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할 뿐이다.

“값이 나가는 것이요?”

“누가 새긴 것입니까?”

“수하인이란 사람이 새겼다나 봅디다…….”

주인도 그것이 수하인의 솜씨임을 모르고 묻은 말은 아니다. 무슨 까닭에 이 도장이 ㉠ 한길에 나오게 되었는질 알고 싶어 묻는 말이다.

“수하인 같은 분이 새겼다면 값을 말하기가 힘들지요.”

“건 무슨 말씀이요?”

“우리 영업하는 사람이야 석재와 치수에 따라 값을 정하지만, 수하인 같은 분이야 원래 장사가 아니시니까 혈값에 그냥도 줄 수 있는 반면, 부르는 것이 값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글썩, 선살 하려면 좋은 석재를 써서 하지, 영 어울려야죠……. 그 좋은 재료를 좀 구경합시다.”

주인도 그 재료가 무슨 재료인지는 감별할 능력이 없었다. 밀화같이 말끔한 돌이라는 것으로, 혹시나 수하인이 늘 말하던 전황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에게 설명할 필욘 없었다.

주인이 먼지를 훑 불어 내놓는 갑 속엔 각종 석재가 그득히 들어 있었다.

“골라 보시우.”

이렇게 뒤섞여져 있는 데선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망설이게 되었다.

“이게 어떻습니까?”

“그야 손님 의향이시죠.”

“대리석이죠?”

“대리석에다 대겠습니까? 계혈석이란 특수한 돌입니다.”

“결재 도장이니까 무늬도 좀 이렇게 울긋불긋한 것이 위엄이 있어 봐지 않습니까?”

“그야, 쓰시는 분 마음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장사치란 손님의 비위에 오르내리는 존재들이지만 오준은 적이 만족했다.

자체(字體)를 고르고 값을 흥정했다. 어차피 새겨 갈 도장이란 것을 눈치 챈 주인은 값을 듬뿍이 불렀다.

“한 자에 삼천 환씩 치고, 재료값까지 합쳐 만오천 환이면 비싼 값이 아닙니다. 그러구 이런 어른의 도장을 새기면 널리 선전도 되고 해서 처음부터 싼 값으로 부른 것입니다.”

석운 앞에서 오준이 만 환 정도면 될 것이라고 장담한 것은 값을 알고 한 말이 아니라, 엄청나게 불러 본 것이지만, 실지 그 이상이고 보니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다.

“비싼 값이 아닙니다. 서울 장안 다 돌아다니셔도 더 싼 값을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결을 보십시오. 품이 굵이나 더 듭니다. 수정과 상아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것이라면 제가 이 재료를 사는 셈 치고 그냥 새겨 드리지요.”

오준은 그 말엔 귀가 솔깃했다. 이 하치않은 돌 대신 수정이나 상아 도장을 그냥 새겨 준다니 ㉡ 흥정은 된 흥정인 것 같았다.

“그러실 것 없이, 이 재료를 맡으시고 상아 도장 하나 더 끼워만 환으로 합시다.”

주인은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였다.

좀 싼 값이긴 해도 그 도장을 수하인에게 돌려주고 싶었던 까닭이다.

서법(書法)과 도법(刀法)은 물론, 돌을 다루는 것까지 이 주인은 수하인에게 배우다시피 한 사람이다.

주인은 수하인을 찾을 생각으로 일찌감치 가게 문을 닫았다.

동소문 집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좁은 방이지만, 알뜰스레 꾸며 놓은 건넌방에 수하인은 등불 밑에 단좌하고 있었다.

“오래간만입니다.”

“오, 웬일이고? 가게를 일찍 닫았구만…….”

“네……. 오늘 좀 이상스러운 물건이 들어왔기에 일찍 문을 닫고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젊은 친구가 내놓는 도장갑을 보고 수하인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된 연고이고?”

젊은 친구는, 오준이라는 작자가 그 도장을 갖고 와서 결재 도장으로선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던 말에서부터 낱낱이 일러바쳤다.

“㉢ 자네 복일세……. 술을 좀 하려나?”

조용히 묻고 난 수하인은 술상을 청했다.

술을 들면서도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이 마음의 동요를 누르려고 애쓰는 것같이 보여, 젊은 주인은 오히려 미안스러웠다.

“그것이 전황석일세, 자네 처음이지?”

“네?”

젊은 주인은 전황석이라는 말에 주기가 혹 위로 오르는 것 같았다.

“원정 민영익 씨가 쓰던 인장이지……. 그것이 어쩌다 거부 이모가 갖고 있던 것을 우연스레 구했기에, 석운이 벼슬을 했어도 선사할 것이 있어야지. 그래 보냈더니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구만. 자네 손에 갔으니 이제야 제값을 불러 줄 사람을 찾은 셈일세.”

수하인이 갖고 가라곤 하지만 젊은 주인은 들고 나올 수가 없었다.

㉣ 자기 솜씨라면 뽀뽀 갈아 버릴 수도 있었지만, 아무리 그 재료가 귀중한 것이라 해도 마음대로 갈아 버릴 수 없는 물건인즉, 들고 나올 필요가 없었다.

“㉤ 전황석을 알고 쓸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선생님이 보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하인은 몇 번 사양했지만 젊은 친구의 고집도 어지간했다.

계혈석 도장을 새겨 주기로 하고 수하인은 그것을 받아 두었다.

버릴 수 없는 친구에게 버림을 받은 듯싶어 한없이 섭섭했다.

“산홍이, 술을 한 잔 따라 주우.”

산홍은 수하인 하라는 대로 술을 따라 권했다.

밖엔 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잔을 산홍에게 권했다.

산홍은 옛날과 다름없이 두 손으로 받은 잔을 소반 위에 놓았다.

[A] 산전수전 다 겪은 산홍이었지만, 오심을 바라보는 얼굴이면 서도 잔주름이 없었다.

수하인은 가라앉은 마음의 흥을 돋우려고 대금(大琴)을 들었다.

귀에 익은 가락이다.
 한 잔 술에 얼굴이 붉어진 산홍은 살풋이 눈을 감았다.
 지나온 한평생이 대금의 가락 모양 산홍에게 쓸쓸하고 외로웠다.
 가락을 짚는 수하인의 손끝은 허무한 인정에 떨었고, 지그시
 감은 긴 살눈썹이 축축이 젖어들었다.
 - 정한숙, 「전황당인보기」 -

32. 위 글의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장방 주인’은 자신의 뜻대로 거래를 이끌어가는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
- ② ‘오준’은 전각 재료라든가 전각 기술에 대한 식견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 ③ ‘석운’은 친구의 정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 ④ ‘수하인’은 제자의 도움을 받고 있는 현실에 언짢아하고 있다.
- ⑤ ‘산홍’은 예의 바른 몸가짐으로 상대방을 공경하고 있다.

3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귀한 물건이 홀대받는 속내를 궁금해 하고 있다.
- ② ㉡: 자기에게 유리한 흥정이었다고 만족하고 있다.
- ③ ㉢: 친구에게 보낸 선물이 타인의 손에 들어간 것을 보면서 서운해 하고 있다.
- ④ ㉣: 자신의 전각 기술이 뛰어나다고 믿고 있다.
- ⑤ ㉤: 전각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현실을 구실 삼아 스승을 위로하고 있다.

34. [A]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작가의 주제 의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등장인물의 변함없는 태도와 쉽게 변해 버린 인심을 대조함으로써 예술이 지니는 현실 비판적 기능을 강화한다.
- ② 대금 연주를 통해 세상에서 받은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물질만능주의를 정신적인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 ③ 대금 소리를 매개로 등장인물 간의 감정 이입을 형상화함으로써 예술의 진정한 가치가 정서적 일체감에 있음을 강조한다.
- ④ 포근한 느낌을 주는 흰 눈과 따뜻한 느낌을 주는 붉은 얼굴을 중첩시킴으로써 인정미 넘치는 사회가 오리라고 기대한다.
- ⑤ 대금을 짚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주인공의 고적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드러낸다.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세종실록 12년 2월 19일 조에는 세종의 명을 받아 표준 음률을 정하고 아악(雅樂)을 제정하는 사업을 맡았던 박연이 황종관 제작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제시했던 해결 방안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박연이 아뢰기를,

“기장[黍]을 쌓는 법은 비록 전적(典籍)에 기재되어 있지만은 참된 기장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중략) 신이 원하옵건대, 남방의 여러 고을에서 기른 기장을 모두 가져와 세 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쌓아 황종관을 만들어, 그중에 중국의 음과 서로 합하는 것이 있으면 삼분손익(三分損益)하여 12율관을 만들고, 오성(五聲)의 조화를 얻으면, 이어서 도(度)·량(量)·형(衡)도 따라서 살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중국 역대의 음률 제정이 기장으로 말미암아 일정하지 않았고, 성음의 높낮이도 시대에 따라 달랐으니, 지금 중국의 음률이 참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기장이 참됨을 얻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음률과 도·량·형의 제정은 곧 천자의 일이고 제후의 나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남방의 ‘검은 기장[秬黍]’이 끝내 중국의 황종(黃鍾)*과 합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형편에 따라 다른 종류의 기장을 임시로 사용해 쌓아 율관을 만들어 중국의 황종에 맞추고, 그런 연후에 법도에 따라 가감해 성률을 바로잡으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12년 9월 11일 조에는 세종이 음률 제정의 고제(古制)를 탐구하던 중에 황종관 제작 사업의 방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아악은 본디 우리의 소리[聲]가 아니고 실은 중국의 소리[音]이다. 중국 사람들은 평소에 익숙하게 들었으므로 제사 때 연주함이 마땅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전에는 향악(鄕樂)을 듣고 죽어서는 아악을 연주하니 어찌 그러한가? 하물며 아악은 중국에서도 시대에 따라 만든 것이 다르고, 황종의 소리 또한 높고 낮음이 있다. 이로 보아 아악의 제도는 중국에서도 일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조회나 하례에 모두 아악을 연주하려고 하나, 합당한 제도를 정하지 못할까 걱정이다. 황종관으로는 후기(候氣)**함도 여의치 않을 것 같다. 우리나라가 동쪽에 치우쳐 있어 춥고 더운 풍기(風氣)가 중국과 아주 다른데, 어찌 우리나라의 대나무로 황종관을 만들겠는가. 황종은 반드시 중국의 관을 사용해야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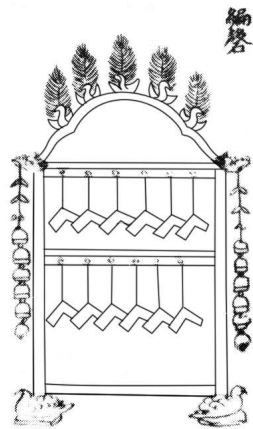
(중략) 박연이 만든 황종관은 어느 제도에 근거해 바로잡은 것인가? (중략) 지금 우리나라의 기장을 가지고 황종관을 정하는 것은 매우 불가한 일이다. (중략) 봉상사에서 악을 익히는 자들이 관습도감의 사람들만 못할 것이니, 모름지기 관습도감의 사람들로 하여금 익숙하게 익히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박연정양은 모두가 신진 인사들이라 오로지 그들에게만 의뢰할 수 없을 것이니, 경들은 유의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2년 12월 1일 조에는 「아악보(雅樂譜)」가 완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세종실록 15년 1월 1일 조에는 아악의 제정 과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관의 기록이 있다.]

을사년(세종 7년) 가을에 해주에서 검은 기장이 나고 병오년 봄에 남양에서 경석(磬石)이 산출되니, 임금께서 개연히 옛것을 개혁해 새로이 고치려는 뜻을 갖고 박연에게 편경(編磬)을 만들라 명하였다. 다만 우리나라는 본래 화음이 맞는 악기가 없어서, 박연이 해주산 검은 기장을 취하여 쌓아 크기를 맞추어 옛 설에 의거해 황종관 한 개를 제작해 붙어 보니 중국의 편종과 편경이 내는 황종음보다 약간 높았다. (중략) 우리나라는 동쪽에 치우쳐 있어 풍토 및 기후가 중국과 매우 달라 후기로 음률을 찾으려 해도 응당 증험하지 못할 것을 헤아려, 해주산 검은 기장의 모양으로 밀랍을 녹여 그것보다 약간 큰 낱알을 만들어 쌓아 황종관을 만드니, 그 형태가 우리나라의 작은 ‘붉은 기장[丹黍]’과 똑같았다. 곧 1알을 1푼[分]으로, 10알을 쌓아서 1치[寸]로 하는 법식으로 해서 9치를 황종관의 길이로 정하니 90푼이다. 여기에 1치를 더해서 황종척(黃鍾尺)의 길이로 정했다. (중략) 밀랍으로 만든 기장 1,200개를 관에 넣으니 진실로 낡고 모자람이 없었고, 붙어 보니 중국의 편종과 편경이 내는 황종음과 서로 맞았다.

(중략) 지신사 정흠지 등이 박연에게 묻기를 “형제(形制)와 성음의 법을 어디에서 취했는가?” 하니, 박연이 말하기를 “형제는 중국에서 하사해 준 편경에 의하였고, 성음은 신이 직접 만든 12울관으로 맞추어 이루었습니다.” 하였다. 여러 대언(代言)들이 박연에게 꾸짖으며 말하기를 “중국의 음을 버리고 직접 울관을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하고 모두 터무니없고 망령되다 여겼다.



<세종실록의 편경>

(중략) 임금이 박연에게 명하기를, “내가 조희의 아악을 창제하고자 하는데 입법과 창제는 예로부터 하기가 어렵다. 임금이 하고자 하는 바를 신하가 혹 막고, 신하가 하고자 하는 바를 임금이 혹 듣지 아니하며, 비록 위와 아래에서 모두 하고자 하여도 시운이 불리한 때도 있다. 지금은 **나의 뜻**이 먼저 정하여졌고, 나라에 일이 없으니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이룩하라.” 하였다.

- 「조선왕조실록」 -

- * 황종 : 아악의 12음률 가운데 첫 번째 음.
- ** 후기 : 절기에 따라 달라지는 천지의 기(氣)를 황종관으로 측정하는 것.

35. 위 글의 ‘황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황종관의 길이는 황종척으로 9치였다.
 - ㄴ. 황종관의 재료인 기장의 산출지는 전적에 규정되어 있었다.
 - ㄷ. 중국에서 받아 온 편경의 황종음에 맞추어 황종관을 만들었다.
 - ㄹ. 해주산 기장으로 만든 황종관과 밀랍 기장으로 만든 황종관의 음이 일치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ㄷ ⑤ ㄷ, ㄹ

36. 위 글의 시대 배경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악의 제정에 앞서 도량형 정비 사업을 진행하였다.
- ② 음악을 관장하는 부서로 봉상시와 관습도감이 있었다.
- ③ 검은 기장과 경석의 출현으로 편경 제작 의욕이 고무되었다.
- ④ 조정의 관료들은 박연의 독자적인 황종관 제작에 비판적이었다.
- ⑤ 조희 음악과 제사 음악을 아악으로 일치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37. 위 글로 미루어 볼 때, ‘나의 뜻’을 정하는 데 바탕이 되었을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중국의 아악도 불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
- ② 재래의 아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 인식
- ③ 고제에 맞는 참된 황종음을 구현할 수 있다는 확신
- ④ 중국의 황종관도 정확한 후기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생각
- ⑤ 조선과 중국의 풍기는 다르지만 음률의 조화는 가능하다는 자신감

[38~4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쟁하는 가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관련된 경험적 증거를 살펴서 결정하게 된다. 경험적 증거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세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제거법은 여러 가설을 세우고 경험적 증거로 경쟁하는 가설들을 하나씩 제거해 감으로써 남는 가설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여러 가설 중에서 참임이 확실한 가설이 분명히 있고 경험적 증거가 나머지 가설을 분명하게 제외시킬 때 유용하다.

하지만 제거법은 경험적 증거가 여러 가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최근 경제 지표가 좋다는 경험적 증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건전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가설과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위험 요인이 증대되고 있다는 가설 모두에 부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쟁하는 두 가설 어느 것도 주어진 경험적 증거에 의해 배제되지 않으므로 제거법은 가설 선택의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고전적 귀납주의는 제거법의 이런 단점을 보완하여 경험적 증거가 배제하지 않는 가설들 사이에서 선택을 가능하게 해 준다. 고전적 귀납주의는 특정 가설에 부합하는 경험적 증거가 많을수록 그 가설이 더욱 믿을 만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관련된 경험적 증거 전체를 고려하여 가설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효능이 기대되는 두 신약 중 어느 것을 건강보험 대상 약품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고전적 귀납주의는 우리가 두 신약에 대한 다양한 임상 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긍정적 결과를 더 많이 얻은 신약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물론 임상 시험에서 부정적 효과를 보인 신약에 대해서는 고전적 귀납주의는 제거법과 동일한 결론을 제시한다.

그런데 어떤 경험적 증거가 특정 가설에 부합할 때, 우리는 고전적 귀납주의로부터 그 가설의 신뢰도가 그 경험적 증거로 인하여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베이즈주의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새로운 경험적 증거가 입수되기 전에 가설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뢰도를 0부터 1까지의 값으로 나타내고 이를 '사전 확률'이라 하자. 신뢰도 0은 가설이 거짓임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의미이고, 1은 가설이 참임을 확신한다는 의미이다. 이 사전 확률이 새로운 경험적 증거에 의해 어떻게 새로운 신뢰도, 즉 '사후 확률'로 바뀌는지를 말해 주는 '베이즈 정리'라는 명확한 계산 방식이 있다. 베이즈주의는 사후 확률에서 사전 확률을 뺀 값을 '증거의 힘'이라고 부르며, 이를 통해 새로운 경험적 증거가 가설에 대해 얼마나 강력한 증거인지를 판별한다. 그러므로 주어진 가설의 신뢰도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경험적 증거의 힘은 0이 된다.

예를 들어, 한 에어컨 회사가 여러 가지 기후 증거 자료를 통해 내년 여름 기온이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치보다 더 높아서 에어컨 판매가 늘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고 하자. 이 가설의 사전 확률을 0.6이라고 하자. 그런데 내년 경기가 좋아져서 가전 제품 소비가 늘 것이라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 베이즈 정리를 적용하여 주어진 가설의 사후 확률이 0.8로 높아졌다고 하자. 이때 새로운 증거가 주어진 가설에 대해 갖는 힘은 0.2가 된다. 이처럼 베이즈주의는 증거와 가설 사이의 관계를 정확한 정량적 수치로 표현할 수 있어서 가설 선택의 엄밀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베이즈주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중요한 비판 하나는 베이즈주의가 제시하는 가설 평가 방법이 과학자들의 실제 연구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베이즈주의는 증거와 가설의 관계를 확률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그런데 비판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과학자들은 그와 같은 확률 계산을 하지 않고 다른 증거 평가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베이즈주의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이론이라고 비판받는다. 이에 대해 일부 베이즈주의자들은 베이즈주의가 과학자들이 실제로 가설을 평가하는 방식을 기술한 이론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을 제시한 이론이라고 대응하기도 한다.

38. '베이즈주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베이즈주의에 따르면, 사후 확률이 사전 확률과 같을 수 없다.
- ② 베이즈주의는 증거의 힘에 따라 증거를 순서대로 열거할 수 있다.
- ③ 베이즈주의에서는 가설의 사전 확률이 높을수록 가설의 사후 확률이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
- ④ 베이즈주의가 규범적 이론이라면, 과학자들이 베이즈 정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 그 정당성이 위협받지 않는다.
- ⑤ 베이즈주의에 따르면, 참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가설의 사후 확률은 가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높아진다.

39. '제거법'과 '고전적 귀납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거법은 둘 이상의 가설이 제기될 때 유용할 수 있다.
- ② 둘 이상의 가설이 이미 확인된 경험적 증거와 부합할 때, 제거법은 가설 선택을 확정짓지 못한다.
- ③ 가설에 부합하는 증거가 계속 등장할 때, 고전적 귀납주의는 가설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말한다.
- ④ 고전적 귀납주의는 경험적 증거를 통해 경쟁하는 가설들에 대한 상대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 ⑤ 경험적 증거가 가설에 부합하지 않을 때, 제거법과 고전적 귀납주의는 가설 선택에 대해 다른 답을 내놓는다.

40. <보기>에 제시된 사례를 베이즈주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범인이 왼손잡이다.”라는 가설 A에 대해 철수는 증거를 보기 전에 이미 A가 참이라고 거의 확신했다. 그런데 시신에 난 칼자국은 범인이 왼손잡이라는 증거 (가)이고, 범인이 남긴 필적은 범인이 오른손잡이라는 증거 (나)이다. 철수는 (가)와 (나)를 함께 고려하여 가설 A에 대해 더 확신하게 되었다. 반면 지문 흔적에 대한 분석 (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① (가)와 (나) 중에서 A에 대해 갖는 증거의 힘은 (나)가 더 크다.
 ② (가)와 (나)와 (다)가 A에 대해 갖는 증거의 힘을 합하면 0보다 크다.
 ③ (나)가 A에 대해 갖는 증거의 힘은 0보다 크다.
 ④ (나)와 (다)만 고려하면 A의 신뢰도는 변함이 없다.
 ⑤ (다)가 A에 대해 갖는 증거의 힘은 0보다 크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